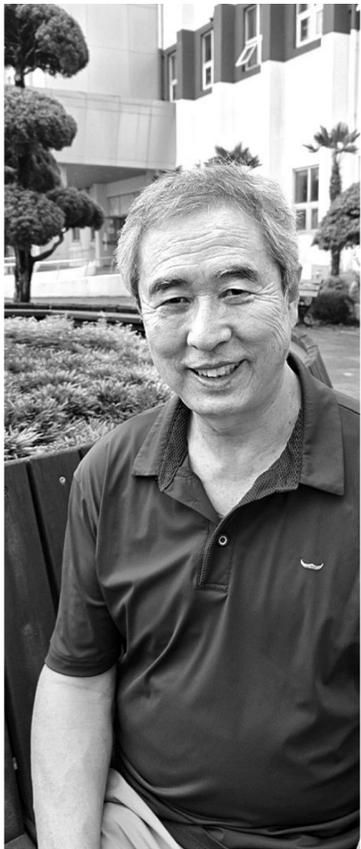


# 연민과 사랑, 성찰의 '회초리 연가'

유춘홍 시인, 35년 만에 첫 시조집 해남서 교편 생활...총 75편 수록 교직·신앙·가족 등에 대한 단상 "누군가에게 위안 된다면 만족해"



유춘홍 시인

등단한 지 35년 만에 첫 시조집을 펴낸 시인이 있어 화제다.

해남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했던 유춘홍(67) 시인이 주인공. 유 시인은 최근 시조집 '회초리 연가(다인숲)'를 발간했다.

작품집에는 모두 75편의 시조가 수록돼 있다. 교사로서의 단상 등을 소재로 한 15편을 비롯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모티브로 한 15편, 가족을 소재로 창작한 15편, 신앙생활과 관련된 15편, 병상에 있는 와이프를 생각하며 쓴 작품 15편 등 모두 75편이 담겨 있다.

유 시인은 "지난 1982년 교사로 발령받아 2019년까지 38년 교직생활을 했는데 주로 해남에서 근무했다"며 "당초 정년퇴임 기념으로 작품집을 내려 했는데, 안타깝게 와이프가 몸이 아파 병상에 있다 보니 늦어졌다"고 했다.

유 시인은 예전의 은사님이었던 고(故)윤진호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다. "윤 선생님이 충분히 작품집을 낼 만했는데 오랫동안 시집을 발간하지 않았다"며 "왜 안내시냐?"고 물었더니 "누가 나같은 사람 작품 읽어주겠소?"라는 겸양의 말이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선생님은 '내가 죽기 전에 책 한권 내고 글 빛을 깔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 또한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내 작품을 읽고 누군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부연했다.

유 시인은 등단한지 35년 만에 책을 내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시인의 진중한 성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초리'는 질책이나 꾸지람 의미보다는 애정과

애뜻함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체벌보다는 사랑의 징표이자 가르침과 돌봄의 상징으로 전이된다.

"동그라미 하나에 / 뾰죽지는 꿈이 있어// 봄바람에 가슴은 / 꽃물결로 일렁여도 / 이 밤사 / 어두



운 창문/ 별을 헤지 못했다 / '시험공부' '시험공부'는 성적로

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세태를 비유한 작품이다. 38년간 교직생활을 하며 시인은 시험과 연관된 시간을 무수히 보냈을 것이다. '시험 시간', '결과 반성'으로 이어지는 작품에는 제자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 자기 성찰 등이 투영돼 있다. "황사 바람 이는 하늘/ 달빛도 흐릿한 밤// 소쩍 새 받은 울음/ 창문을 건너오면// 고뇌를 재우지 못한/ 잔주름의 나를 본다.// 이순(時運)의 영마루는 / 떠밀려 넘어섰나..."

위 시 '지화상'은 교사로서, 남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명징하게 돌아보는 작품이다.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고 '고뇌를 재우지 못한' 오늘에 이른 현실을 자신만의 시어로 읊조리고 있다.

출판사 다인숲 임성규 대표는 "유 시인은 오랫동안 협회 활동을 했지만 책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다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서도 몇 년이 흘러 작품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품에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은 물론 삶에 대한 지혜, 참회 등이 묻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윤삼현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 대해 "훈육의 시, 추모의 시, 기도의 시이며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시"라며 "언어의 행간에서 분출되는 짙은 서정성은 고스란히 심미적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자아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해남 출신인 유 시인은 전남대 사범대 국어교육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0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다.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등에서 활동했다. 남촌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태일문학상'에 김수열 시인

수상 시집 '날흔'...제주 4·3의 상흔 조명 깊은 울림



제주 출신으로 4·3시선집 '꽃 진 자리' 등을 펴낸 바 있는 김수열 시인이 '제7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날흔'이며 상금 2000만원.

죽형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6일 제7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김수열 시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시집에 대해 "곳의 시학을 통해 망각된 역사와 사건 속의 존재를 다시 불러낸다"며 "'날흔'은 조태일 문학의 현재 진행형이자, 역사와 문학이 서로의 그늘을 벗 삼아 나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시집 '날흔'은 제주 4·3의 상흔을 섬세하면서도 정치하게 조명하고 있어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집이다. 또한 국제적인 연대의 감정까지 투영해 제주 4·3의 세계적 의미를 오롯이 담아낸다. '날흔'은 제주 언어로 죽은 지 삼 년이 안 된 낯을 일컫는 말로, 시인의 지향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 시인은 수상 소감에 대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산인 죽형 조태일 시인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뚝뚝뚝 사업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2년 '실천문학'을 통해 창작활동을 시작한 김 시인은 시집 '어디에 선들 어따랏',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 '생각을 훑치다', '물에서 온 편지' 등을 펴냈으며 오장환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소년 열정과 끼, 무대에서 '반짝반짝'

제1회 청소년 전국 가요제 22일까지 참가자 모집

노래에 담긴 열정과 끼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시간이 펼쳐진다.

'제1회 광주시민을 위한 청소년 전국 가요제'가 오는 24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갈고뫼는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동시에 또래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다. 웹브레문화예술단 주최·주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요, 민요, 발라드 등 장르 제한 없이 자신만의 개성있는 곡을 선보일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모집, 참가비 무료.

예선은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본선에는 각 부문 5명씩 총 20명이 진출하게 된다.

총상금은 300만 원 규모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고등부와 유소년부 대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광주시교육감상



북구문화센터에서 오는 24일 '제1회 청소년 전국가요제'가 열린다.

이 수여된다.

유병석 웹브레문화예술단 대표는 "이번 가요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대라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여성의 몸, 어떻게 상품화 되었는가

광주여성민우회, 27일 페미니즘 독서모임... '레이디 크레딧' 분석

"학교를 포기해라" 엄마를 협박 했죠. 그러면서 돈 맛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가 그렇듯 돈의 출처를 묻기보다 그냥 말을 안 하죠."

"다방에 다닐 땐 내 손에 월급이 남질 않았어요. 뭘가 다 끼여요, 아무튼"

성매매 현장을 지나온 여성들의 증언은 이 산업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조의 문제, 자본의 논리, 그리고 그것을 외면해온 사회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사무실

에서 8월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연다. 이번 모임의 주제 도서는 김주희의 '레이디 크레딧'(사진). 책은 성매매 산업을 '성(性)경제'와 금융 자본주의라는 틀로 분석하며, 오늘날 성매매가 어떻게 사회 전반의 이윤 논리 속에 포섭되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조명한다.

독서모임은 성매매를 둘러싼 도덕적 담론을 넘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산업화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성매매가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을 독서와 대화를 통



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서모임은 회원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참여 신청은 광주여성민우회에 문의하면 된다.

민우회활동가 도비는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책이 궁금한 사람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며 "당일 책을 읽는 시간은 마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짧은 메모를 준비해오면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